

투데이 칼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4000여명을 응원한다

옛 날이 영웅의 시대라면 지금은 민중의 시대다. 민중의 시대를 열고자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산화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마저도 영웅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으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혁명 나이 127년, 이제는 참여자들에게 더 주목하고 이들의 위대한 가치를 발굴해야 할 때다. 이럴 때 비로소 혁명의 본질에 대한 현대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웅의 이야기로만 들려 나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적 괴리감도 해소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의미에서 혁명의 중심이자 수많은 참여자들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전봉준의 주역 부대원 4,000여명을 응원한다. 전봉준은 고부군수 박원명의 설득과 안해사 이용태의 폭거에 해산해 버린 농민들을 뒤로 하고 고향 무장으로 도피한다.

이후 끈질긴 설득 끝에 동학 대접주 순화중의 혁명 참여 동의를 이끌어 낸다. 뒤이어 순화중 등은 격문을 띄어 혁명 참여자를 모집



전 민 중  
고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하는데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이 들이다. 이들이 특히 주목받고 응원받아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성이다. 무장 구수내에 집결한 4000여명은 여러 지역을 대표한다. 고창, 무장, 흥덕을 위시하여 정읍, 태인, 고부, 부안과 영광지역 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멀리서 소식을 듣고 온 무안, 순천, 광주 등 남쪽 지방 사람들도 이에 가세한다. 이는 한 지치단체를 벗어나 전국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혁명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

둘째, 뛰어난 시대 의식이다.

4000여명은 한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반역이라는 시대 인식의 한계와 두려움을 처음으로 극복한 이들이다. 이러한 이들의 참여마저 없었다면 혁명은 결국 한낱 전봉준의 상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 사람들의 참여에 고무된 전봉준 등은 높은 시대 의식을 담은 포고문을 전라도 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의 여러 고을에도 일린다.

셋째, 숭고한 자기희생 정신이다. 이들은 1.2차 혁명 기간 동안 여러 사건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이 다. 무장기포를 시작으로 황토현 전투, 황룡전투, 삼례봉기 등에서 전봉준과 생사를 같이 한다. 실제

전봉준은 공초(심문조서)에서 '4000명'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이들을 혁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사형 집행 전에 일본인들은 전봉준을 친일파로 팔아들여 이용하려고 온갖 화유와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전봉준은 "내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는데 나만이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 죽음을 초월한 강한 동지애를 느끼고 있다.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위대한 정신은 어려움에 처한 때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나라를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인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 4000여명을 응원함이 없이 이 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들의 위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중의 국가로 합쳐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어느 국립대 교수의 논문위조

어느 국립대 교수가 논문 2편의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해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데이터 위조'라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학이 해당 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교과 훈계 수준의 '견책' 처분이었다. 지난 2018년 국내의 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발표 2년 뒤 해당 논문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논문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오류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대학 측은 두 논문의 데이터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교수가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 본 것이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에서 어떤 징계를 내렸든 간에 학자로서는 사실상의 퇴출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심지어 첫 번째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서 연구 윤리 위반을 심

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철회까지 한 상황이다.

교수는 두 편의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오류는 정오표를 통해 수정하면 그만인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편향된 판단을 했고, 연구자 권익 관련 기관에서 일부 소명을 거처했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연구 윤리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소 징계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실험 데이터를 변조한 사실이 적발된 모 대학의 교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교수에게 내린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즉 훈계 수준의 처분이었다.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연이은 교수 비위 파문이 확산될까 두려워 일부러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 상관 '만마도관' 복원 문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숲 치에 있었던 '만마도관(萬馬道關)'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마도관(萬馬道關)은 '만(萬)', '말(馬)', '길(道)', '빗장(關)'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마도관(萬馬道關)은 만마관(萬馬關)과 도관(道關)을 상관면 용암리(龍岩里) 동네 이름이다. 만마도관(萬馬道關)은 '완산승경' 가운데 하나다. 높이가 70-80 미터에 이르는 산성과 관문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지 가 바로 만마도관이다. 만마도관이 있었던 곳은 전주-남원 간 국도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남관초등학교를 지나 2킬로미터 가량 더 가면 만마관과 도관 마을이 나온다. 전라선 철로도 바로 옆에 있다. 이곳이 바로 '만마도관'의 현장이다.

전주와 임실의 경계에는 노구 바위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다.

노구바위가 있는 마을은 현재 산정마을이다. 노구바위는 나주·남원 등 남쪽에서 전주로 들어서는 옛 교통로의 길목으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전주의 남쪽 빗장이라 하여 남관이라 불렀으며, 조선시대 때는 남관진이란 군사 주둔지가 있었다. 만약 남관진의 위령 초소격인 만마관이 무너지면 전주는 왜구의 노략질을 막아낼 수 없는 처지였다.

자금은 만마도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이 일대에는 성벽을 쌓았던 돌무더기만이 남아있다. 남관초등학교 앞에는 남관진(南關鎭)이라는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었다.

조선 말기 왜구를 무찌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남관진이다. 그러나 남관진도 없어지고 마을이 들어선지 오래다. 왜적을 막아낸 관문을 '호남제일관'으로 부각시켜 만마관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프랑스 니스 카니발 중 펼쳐진 꽃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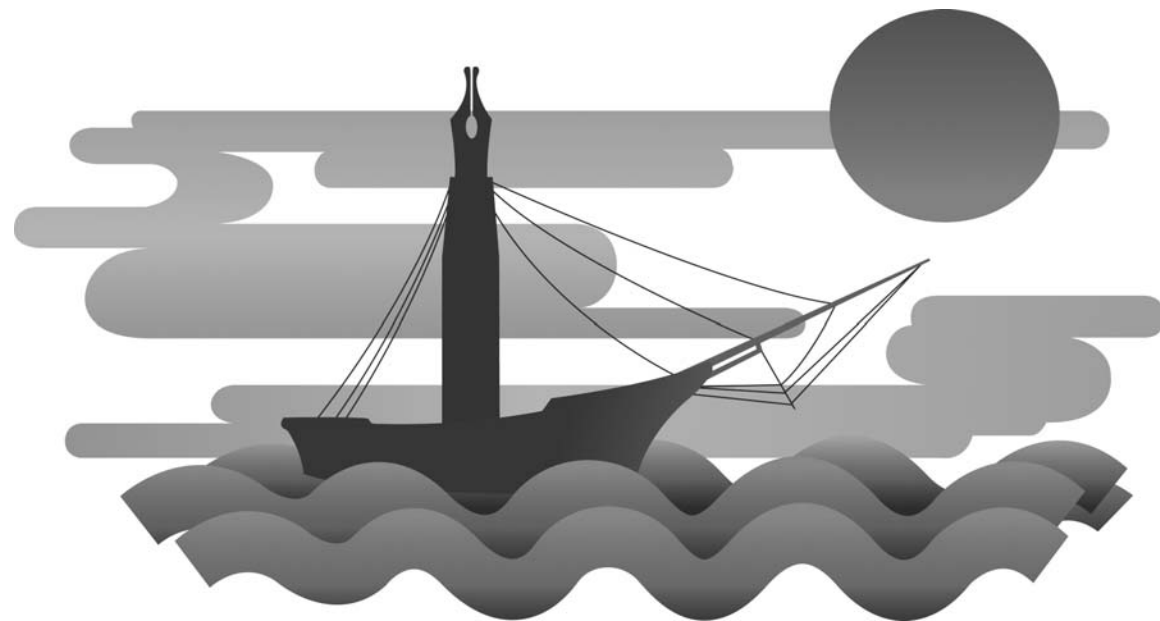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니스 카니발 중 꽃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올해 니스 카니발은 '동물의 왕'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일 개막해 27일까지 이어진다.

베니스 카니발, 가면 쓰고 걷는 시민들



베니스 카니발 이틀째인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축제 기면을 쓴 시민들이 산 미르코 광장을 걷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니스 카니발이 2년 만에 재개돼 올해는 퍼레이드와 관중 없이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